

北宋金陵長干寺眞身塔地宮 출토 七寶阿育王塔 試論

이승혜*

- I. 전승과 발굴: 眞身塔地宮과 七寶阿育王塔
- II. 長干寺眞身塔地宮의 구조와 역사성
- III. 七寶의 의미
- IV. 復古, 古式의 재현을 통한 과거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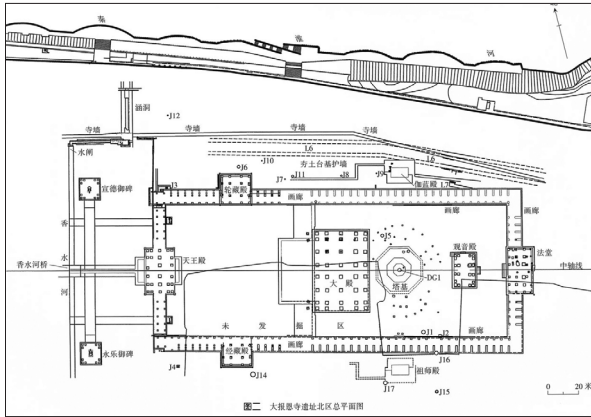
I. 전승과 발굴: 眞身塔地宮과 七寶阿育王塔

중국 강소성 남경시 古長干里에 위치한 大報恩寺 유적은 남북조시대의 대찰인 長干寺가 위치했던 곳이다. 장간사는 일찍이 東吳 시기에 석가모니부처의 眞身舍利를 모신 阿育王塔이 건립됐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梁武帝(재위 502-549)의 아육왕탑 후원과 대규모 진신사리 공양으로 그 이름을 널리 떨쳤던 강남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아육왕탑은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 즉 阿育王이 기원전 3세기경 부처의 眞身舍利를 봉안하기 위해 세웠다는 전설상의 八萬四千塔을 지칭하나, 중국의 아육왕탑은 실제로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 건립됐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역대 문헌 속의 아육왕탑은 대부분 폐허가 된 후에 발견됐다고 전한다. 탑의 구체적인 형상 보다 탑기의 발굴, 사리의 공양과 재매납 등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한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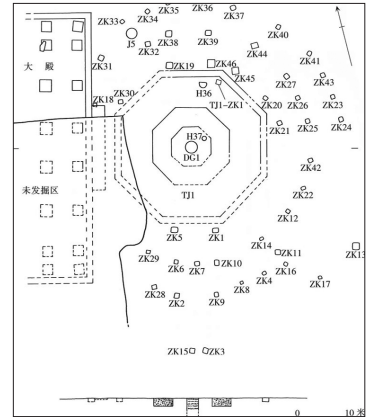
* 삼성미술관 Leeum

唐代的 몇몇 기록에 보이는 아육왕탑의 층수, 형태, 평면 역시 각기 달라서,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다양한 형식의 탑이 아육왕탑으로 생각됐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조시대 이래 당대에 이르기까지 집록된 아육왕탑에 대한 고사와 영험담은 아육왕탑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형태와는 무관하게 부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聖物로 널리 존송됐음을 알려준다.¹

장간사의 명성 역시 아육왕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북송대 장간사와 그 아육왕탑의 모습은 2007년 2월에서 2010년 말까지 시행된 대보은사 유지의 발굴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大中祥符 4년(1011)에 건립된 장간사 眞身塔의 塔基(보고서 편호 TJ1)와 地宮(편호 DG1)이 명대 유적 아래에서 발견된 것이다(도 1, 2).² 지궁 중심부에 매납된 石函의 북벽에 새겨진 장문의 <金陵長干寺眞身塔藏舍利石函記>(이하 <석함기>로 지칭)에 의하면 북송 대중상부 연간 塔主 演化大師 可政은 眞宗(재위 998-1022)의 후원 아래, 將仕郎 滑州助教 王文을 導師로 삼아 신앙



도 1 大報恩寺 遺址 北區 평면도(『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5, 圖2)



도 2 長干寺 眞身塔 塔基(TJ1) 발굴 평면과 부면도(『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6, 圖3)

1 唐代까지의 중국 아육왕탑 전승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주경미, 「中國의 阿育王塔 전승 연구」, 『東洋古典研究』 28(2007), pp. 369-408.
 2 답기에 대해서는 祁海寧·周保華·龔巨平, 「南京大報恩寺遺址北區考古發掘」, 國家文物局 主編, 『2010 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文物出版社, 2011), pp. 178-186; 祁海寧·龔巨平, 「北宋長干寺聖感塔地宮形制成因初探」, 『東南文化』 2012年 1期, pp. 76-82; 祁海寧·周保華, 「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時代, 性質及相關問題研究」, 『文物』 2015年 5期, pp. 66-73 참조. 지궁과 출토품에 대해서는 南京市考古研究所, 「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文物』 2015年 5期, pp. 4-52 참조.



(左)도3 石函, 北宋 1011년, 高 183cm, 江蘇省 南京市 長干寺 眞身塔 地宮 出土, 南京市博物館(『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13, 圖15)

(右)도4 長干寺 眞身塔 地宮 出土 七寶阿育王塔, 北宋 1011년, 高 117cm, 南京市博物館(『文物』2015年 5期, p. 2)

대중을 인솔하여 남북조시대 장간사의 옛 자리에 사찰을 중건했다(도 3).³ 이 때 높이 200척에 달하는 9층 전탑인 진신탑을 신축했는데, 탑 아래에 七寶造成阿育王塔에 봉안한 佛頂骨舍利를 묻었다(도 4). 1116년에 李之儀(1038-1117)가 지은 『天禧寺新建法堂記』는 중건된 장간사는 天禧寺, 새로이 건립된 탑은 聖感舍利塔이라고 사액됐다고 전한다.⁴ 〈석함기〉는 장간사와 그 아육왕탑에 대해 저자인 圓覺大師 德明을 비롯한 송대 강남의 승려들이 가졌던 높은 관심과 경건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덕명은 〈석함기〉에서 북송대 장간사의 연원을 되짚으면서 중국의 19座 아육왕탑 중 금릉 장간사탑이 두 번째라고 밝히고,⁵ 이어서 수대의 병화에 의한 훼손, 송대의 중건에 이르는 아육왕탑의 역사를 기록했다. 東晉(317-420)의 승려 慧達의 사리 발견, 양 무제의 아육왕탑 중건 등 장간사의 주요 사적을 아우르는 덕명의 기술은 『梁書』, 『高僧傳』, 『廣弘明集』, 『法苑珠林』 등에

³ 〈석함기〉의 전문과 해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 龔巨平·祁海寧, 『金陵長干寺眞身塔藏舍利石函記』考釋及相關問題, 『東南文化』2012年 2期, pp. 68-75; 曾立平, 『地久天長斯文永振—揭開長干寺眞身塔地宮佛頂眞骨舍利之謎的碑刻』, 『東方收藏』2015年 1期, pp. 99-113.

⁴ 李之儀, 『姑溪居士前集』卷 37, 『天禧寺新建法堂記』.

⁵ 이와 같은 인식은 『集神州三寶感通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集神州三寶感通錄』, T2106, S2:404b12-406a17 참조.

의거한 것이다. <석함기>를 통해 동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간사 아육왕탑의 긴 역사가 북송대 불교계와 신앙대중 사이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으며, 진신탕의 후원자들이 그에 대한 깊은 궁지와 신앙심을 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자부심은 진신탕, 즉 佛祖 석가모니의 진신탕사리를 모신 탑이란 명칭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⁶

비록 장간사 진신탕은 훼손되어 사라진지 오래이지만, 진신탕 지궁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은 북송대 강남지방에서 발전한 사리신앙과 종교사각문화에 대해 알려준다.⁷ 무엇보다도 진신탕 지궁과 그 출토품은 <석함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문헌과 전승을 통해 형성된 아육왕탑에 대한 북송 불교계와 신앙대중의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진신탕 지궁은 발굴이 완료된 직후부터 중국 고고학계의 크나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발굴에 참여했던 祁海寧 등은 2012년 이래 <석함기>와 관련 문헌, 발굴 성과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진신탕 지궁의 구조가 동시기 사리탑 지궁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진신탕 후원자들이 古式을 선택한 이유를 장간사의 古아육왕탑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를 연이어 발표했다.⁸ 필자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진신탕 지궁의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론은 문헌자료의 보다 신중한 고찰 및 다른 지궁과의 비교를 통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지궁의 구조 뿐 아니라 출토된 多重 사리장엄구 중 소위 칠보아육왕탑의 조형적 연원 역시 북송대 후원자들의 과거에 대한 태도와 탑이 세워졌던 장소의 역사성이란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吳越의 마지막 군주인 錢弘俶(재위 948-978)은 팔만사천탑을 만들어 염부제에 배포했다는 아육왕의 고사를 본따 小塔 모양의 사리기를 여러 점 만들어 오월 경내의 탑 안에 봉안했다.⁹ 전홍숙의 야심찬 사업은 중국에서 발견된 동제, 철제, 은제 소탑과 일본에 傳世되어 온 동제 소탑을 통해 입증된다. 전홍숙 발원의 금속제 소탑에 보이는 인도의 스투파나 중국

6 이 탑은 문헌과 명문, 선행연구에서 眞身塔, 聖感舍利塔, 聖感塔, 長干塔, 釋迦寶塔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된다. 본고에서는 <석함기>를 따라 진신탕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겠다.

7 지궁에서는 6000여 매의 동전을 제외하고도 236건에 달하는 각종 재질의 기물이 발굴됐으며, 출토된 사리장엄구와 공반유물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전시를 통해 중국과 국외에 소개됐다. 진신탕 지궁의 주요 출토품을 소개한 도록은 다음을 참조. 南京市博物館, 『聖塔佛光: 南京大報恩寺址聖感塔地宮出土舍利器』(南京: 南京市博物館, 2009); 東京國立博物館 外, 『中國王朝の至寶』(東京: 毎日新聞社, 2012), pp. 198-199, 259-261; 釋如常 主編, 『七寶瑞光: 中國南方佛教藝術展』(高雄: 佛光山文教基金會, 2014).

8 祁海寧·龔巨平, 앞의 논문; 祁海寧·周保華, 앞의 논문 참조.

9 중국 학계에서는 金塗塔, 阿育王塔이라 칭하며, 일본 연구자들은 寶篋印塔, 金塗塔, 錢弘俶 八萬四千塔이라고 다양하게 지칭한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錢弘俶 阿育王塔, 錢弘俶塔이라는 용어가 제시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전홍숙 발원의 금속제 소탑이라고 풀어쓰겠다.

의 불탑과는 판이한 독특한 형식은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小野玄妙의 선구적인 연구 이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형식적 연원을 오월국 경내에 자리했던 會稽(현재의 절강성 寧波) 鄞縣 阿育王寺 아육왕탑에서 찾았다.¹⁰ 여러 선학들의 지적처럼 전홍숙의 팔만사천탑 발원은 11세기 이후 江浙 지방에서 그가 발원한 소탑, 거슬러 올라가서는 그 모델이 된 무현 아육왕탑을 간접적으로 본뜬 탑형사리장엄구가 민간에서 활발히 조성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아육왕탑이 강남 지역 특유의 종교 유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진신탑 지궁 출토의 칠보아육왕탑은 전홍숙 발원의 금속제 소탑과 그 형식과 도상이 일치하며, 옛 오월국의 영토였던 금릉에서 민간 발원에 의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소위 민간발원 '아육왕탑'과 같은 범주에서 이해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 흐름 속에서 칠보아육왕탑의 형식적·도상적 연원은 무현 아육왕탑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석함기>에 보이는 장간사와 아육왕탑의 역사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이나, 진신탑 지궁에 再現된 고식의 지궁 구조는 과연 진신탑의 후원자들이 칠보아육왕탑을 단지 동시기에 유행했던 형식을 쫓아 설계하고, 조성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본고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여타의 민간발원 아육왕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칠보아육왕탑의 가장 두드러진 시각적 특징, 즉 칠보에 대해 재고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진신탑 지궁의 구조를 중국 사리탑 지궁의 전개과정 속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장간사의 역대 아육왕탑 지궁에 대한 기록과 대조하여 재고하겠다. 이어서 칠보란 특별한 재료가 갖는 함의를 발원자와 관련하여 고찰하겠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전통적인 형식의 모방을 통해 역사적 권위와 명성을 재현하는 '復古'라는 관점에서 칠보아육왕탑을 고찰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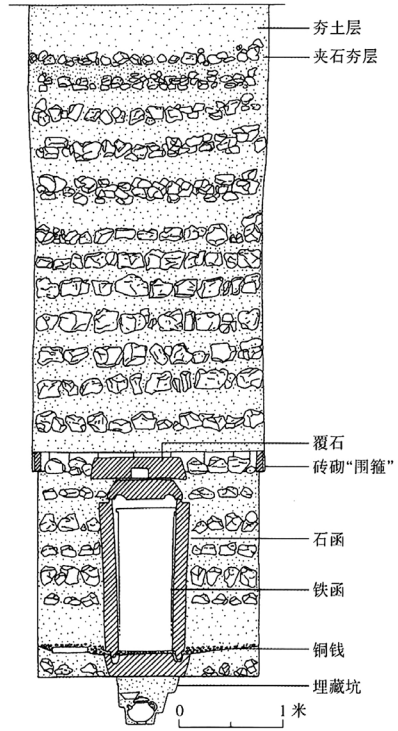
II. 長干寺 眞身塔 地宮의 구조와 역사성

북송대 장간사 진신탑의 탑기는 대보은사 유지 北區 중축선 중단의 토산인 寶塔頂에서 발견됐다. 탑기와 지궁은 모두 표토층 아래에 위치한다. 탑기의 평면은 정팔각형이며, 바깥에서부

¹⁰ 小野玄妙, 「吳越王錢弘徽敬造金塗塔私考」, 『佛敎の美術及び歴史』(東京: 佛書研究會, 1916), pp. 617-640. 중국과 일본에서는 전홍숙 발원의 금속제 소탑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진행돼 왔고, 국내 학계에서는 2000년대 이래 본격적인 연구가 속속 발표됐다. 구미 학계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여러 미술사학자와 불교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터 중심에 이르기까지 5겹의 구조를 에워싸서 완성됐다. 외부의 4단은 팔각형이며, 원형 평면을 지닌 중앙의 第5環이 바로 지궁에 해당한다(도 2). 지궁의 저부는 현존 지표의 6.74m에 달하며, 그 내부는 석재나 벽돌이 아니라 夯土로 층층이 메워졌다. 석함은 벽돌이나 석재를 사용하지 않은 壙室 내부에 바로 매납됐다(도 5). 이와 같은 구조와 매장 방식은 지금까지 발굴된 여타의 송대 사리탑 지궁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예외적인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지궁은 탑기 안에 벽돌이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사리안치실을 지칭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唐代 이후 나타난 용도, 석문과 상방, 궁실로 구성된 甲자형 사리안치실을 말한다.¹¹ 그러나 최근의 중국학계는 협의의 지궁 개념에서 탈피하여 지궁을 탑기 안이나 아래에 사리를 매납하기 위해 건축된 공간으로 보다 폭넓게 정의하는 추세이다. 祔海寧과 龔巨平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1950년대 이래 발굴된 80여 기의 중국 사리탑 지궁을 세 형식으로 분류하고, 그 시대적 변천을 탐구했다.¹² 이들의 연구에서 豎穴土壙式은 탑기 안의 항토층 안에 사리장엄구를 직접 매납하는 형식을 지칭한다. 남북조시기에 주류를 이뤘던 이 형식은 북조 말기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여, 당대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탑기 아래의 토광 안에 벽돌이나 석재로 사리안치공간을 마련한 豎穴磚石室 지궁이 북조 말기에 등장하여 송, 요, 금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초당기에는 앞서 언급한 갑자형 지궁, 혹은 橫穴磚石室 지궁이 출현했다. 이 형식은 출현 이후 빠른 속도로 중국 사리탑 지궁의 주류로 발전했으며, 수혈전석실 지궁과 장기간 공존했다. 이제까지 발굴된 40여 기의 송, 요, 금대의 사리탑 지궁



도 5 長干寺 眞身塔 地宮 부면 시의도(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8, 圖6)

¹¹ 徐莘芳은 일찍이 중국 사리탑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지궁을 탑기 안에 벽돌이나 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宮室로 한정했다. 徐莘芳, 『中國舍利塔基考述』, 『中國歷史考古學論叢』(臺北: 允晨文化出版公司, 1995), pp. 417-437.

¹² 이하의 논의는 祔海寧·龔巨平, 앞의 논문, pp. 78-79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은 대부분 수혈전석실과 횡혈전석실 형식에 속하며, 위에 언급한 중국 사리탑 지공의 발전단계에 부합한다. 그러나 장간사 진신탑의 지공은 수혈토광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개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祊海寧과 龔巨平의 주장과는 달리 장간사 진신탑 지공이 남북조 시대 이후 건조된 유일한 수혈토광식 지공은 아니라는 지적도 근래에 제기됐으나,¹³ 수대 이후 출현한 절대 다수의 사리탑 지공 형제와 차별되는 고식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장간사의 아육왕탑은 역대의 아육왕탑 관련 문헌기록에서 무현 아육왕탑과 함께 중국의 아육왕탑을 대표하는 곳으로 등장한다. 두 탑은 慧皎의 『고승전』에서부터 함께 등장하는데, 모두 혜달(속명 劉薩河)에 의해 발굴됐다고 전하며, 양 무제에 의해 다시 발굴된 후 중수됐다는 공통점이 있다.¹⁴ 『집진주삼보감통록』에서는 東土 19座의 아육왕탑 중 “東晉金陵長干塔”을 “西晉會稽鄞縣塔”에 이어 두 번째로 거론하고 있어 唐代에 이르기까지 두 탑이 중시됐음을 보여준다.¹⁵ 그런데 장간사 아육왕탑에 대한 역대의 문헌기록은 탑기의 발굴과정과 지공의 구조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다른 아육왕탑에 대한 기록과 상이하다. 이 점은 무현 아육왕탑에 대한 기록이 탑기의 발굴이 아니라 아육왕탑 자체의 형상에 집중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어 흥미롭다. 무현 아육왕탑에 대한 초기 기록인 『고승전』에는 형태에 대한 자세한 묘사 없이 감실과 섬돌을 새로이 고쳐 쌓았다는 내용만 등장하나,¹⁶ 『집진주삼보감통록』을 비롯한 당대 이후의 기록에는 탑 아래에서 솟아오른 보탑의 형상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¹⁷

¹³ 高繼習, 「中國古代舍利地宮刑制研究」(山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7), p. 52, 60. 高繼習 역시 장간사 진신탑 지공의 형식이 고식이라는 점에 동의하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理想 속의 진정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논의했다.

¹⁴ 동진의 승려 혜달은 남북조시대에서 당대에 이르는 시기에 찬술된 각종 중국 불교 문헌에서 瑞像의 출현을 예고하거나, 오랫동안 망각된 아육왕탑과 진신탑을 발굴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혜달의 장간사 아육왕탑과 진신탑 발견에 관한 고사는 뒤에서 살펴볼 唐代의 문헌에 보다 상세하게 전한다. 혜달의 아육왕탑 발견 고사의 함의에 대해서는 Wu Hung, “Rethinking Liu Sahe: The Creation of a Buddhist Saint and the Invention of a ‘Miraculous Image,’” *Orientalisms* 27.10 (Nov. 1996), pp.32-43 참조.

¹⁵ 『集神州三寶感通錄』, T2106, 52:404b12-406a17.

¹⁶ 『高僧傳』, T2059, 50:409c-410a. “...頃之進適會稽禮拜鄞塔 此塔亦是育王所造 歲久荒蕪示存基跡 達翹心束想乃見神光焰發 因是修立龕砌 群鳥無敢棲集 凡近寺側畝漁者必無所獲 道俗傳感莫不移信 後郡守孟顛 復加開拓”

¹⁷ 『集神州三寶感通錄』, T2106, 52:404b-404c. “如言南行至會稽海畔 山澤處處求覓 莫識基緒達悲塞煩惋投告無地 忽於中夜聞土下鍾聲 即迂記其處剝木為剝 三日間忽有寶塔及舍利從地踊出 靈塔相狀青色似石而非石 高一尺四寸 方七寸 五層露盤 似西域于闐所造 面開窗子四周天鈴 中懸銅磬每有鍾聲 疑此磬也 繞塔身上並是諸佛菩薩金剛聖僧雜類等像 狀極微細 瞬目注睛乃有百千像現 面目手足咸具備焉 斯可謂神功聖跡 非人智所及也 今在大木塔內 於八王日巡邑里 見者莫不下拜念佛 其舍利者在木塔底 其塔左側多有古跡”; 박건주 외 옮김, 『集古今佛道論衡外』(동국역경원, 1999), pp.372-373.

동진과 양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장간사 아육왕탑 지궁 발굴에 대해서는 638년에 완성된 『양서』와 659년에 찬술된 『南史』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양자의 기록은 대동소이하나, 세부적인 표현 및 단어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¹⁸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양의 장간탑은 아육왕이 세웠다는 팔만사천탑 중 하나로 吳代(222-280)에 이미 멸실됐다. 오의 멸망 이후 옛 자리에 사찰만이 복원됐고, 동진의 咸安(371-372) 연간에 이르러 簡文帝의 후원으로 小塔의 건립을 시작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했다. 이 탑은 孝武帝의 太元 9년(384)에 金相輪과 承露를 얻어 비로소 완성됐다. 그 후 단양에 도착한 혜달은 탑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越城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봤다. 長干里에 異氣가 서린 것을 보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곳이 바로 아육왕이 탑을 세운 곳이었으며, 여러 차례 빛을 받았다. 이에 혜달은 이곳에 사리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무리를 모아 그 자리를 파내려갔더니, 지하 1丈 가량 되는 지점에서 각각 키가 6척에 달하는 石碑를 세 개 발견했다. 가운데 석비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鐵函, 銀函, 金函의 순으로 중첩되어 있었으며, 가장 안쪽의 금함에는 3개의 사리와 손톱 1매, 길이가 수척에 달하는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혜달은 사리를 북쪽으로 조금 옮겨, 간문제가 조성한 탑에 대면하여 서쪽에 1층탑을 세웠다.¹⁹

이상의 기록은 북송대 진신탑 지궁의 구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첫째, 오대에 멸실된 아육왕탑의 유구는 백여 년이 지난 동진대에는 이미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둘째, 사리의 방광을 본 다음 혜달이 발견하여 발굴했다는 지궁은 동오대에 존재했다는 최초의 아육왕탑의 지궁으로 생각된다. 1丈 정도를 팔 때까지 벽돌이나 석재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기록은 지궁이 수혈토광 형식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깊이 1丈 위치에서 발견됐다는 석비 중 하나에는 철함-은함-금함으로 구성된 사리장엄구가 들어 있었다. 이 석비는 그 안에 감을 파서 사리장엄구를 납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昌王銘 사리석함과 마찬가지로 상부가 둥글어 비석처럼 보이는 석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⁰ 넷째, 혜달이 아육왕탑의 지궁을 발굴한 이후 장간사에는 간문제와 혜달이 조성한 두 기의 불탑이 함께 존재했다. 이 중

¹⁸ 『梁書』卷54 列傳 第48 諸夷 諸薄國 및 『南史』卷78 列傳 第68 夷貊 上 扶南國 참조. 두 기록의 원문과 한글 번역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간행한 『역주 중국정사 외국전』(2009-2014)의 디지털 버전을 참조했다. (<http://contents.nahf.or.kr/>)

¹⁹ 『梁書』卷54 列傳 第48 諸夷 諸薄國. “及集衆就掘入一丈 得三石碑 並長六尺 中一碑有鐵函 函中有銀函 函中又有金函 盛三舍利及髮爪各一枚 髮長數尺 卽遷舍利近北對簡文所造塔西造一層塔 十六年 又使沙門僧尙加爲三層 卽是武帝所開者也” 이 부분은 『남사』의 기록도 동일하다.

²⁰ 이 사리석함은 567년에 백제 창왕의 누이가 발원하여 조성했음이 명문을 통해 알려져 있다. 국립청주박물관, 『백제 금동 대향로와 창왕명사리감』(국립청주박물관, 1996), pp. 23-27 참조.

혜달이 조성한 단층탑은 태원 16년(391) 효무제에 의해 3층으로 증건됐다.²¹

혜달이 세웠다는 동진대의 불탑 지궁은 약 150년 후인 양 大同 3년(537) 8월에 무제가 장간사 아육왕탑을 改造하라는 명을 내림에 따라 다시 발굴되게 된다. 『양서』와 『남사』에는 이하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처음에 4척 가량 땅을 팠더니 ‘龍窟’에 다다랐는데 그 안에서 옛 사람들이 매납한 금은진보가 나왔다. 지표로부터 깊이 약 9척까지 땅을 파내려가자 石礫에 이르렀는데, 그 아래에 석함이었다.²² 석함 안에 鐵壺, 철호 안에는 銀罍, 은감 안에는 金鏤罍이 차례로 들어있었고, 금루앵 안에는 밤톨만한 크기의 사리 세 개가 봉안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사리 네 개와 머리카락, 손톱 4매가 봉안된 琉璃碗이 함께 들어있었다. 양 무제는 발굴한 사리를 공양한 후 장간사 아육왕탑을 雙塔으로 중수하여 한 쪽에는 사리, 다른 탑에는 머리카락과 손톱을 봉안했다.²³

양 무제의 아육왕탑 지궁 발굴에 관한 위의 기록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첫째, 동진대의 지궁은 동오대에 발굴된 아육왕탑 지궁과 마찬가지로 벽돌이나 석재로 보강하지 않은 토광이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용굴’이라는 구조가 과연 지궁 전체를 지칭하는가와 동진대 지궁도 원형의 평면으로 건설됐는가이다.²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진대 지궁의 평면 형태가 『양서』와 『남사』 중 어느 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장간사의 동진대 아육왕탑에 대한 기록과 비교할 만한 남조의 지궁이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는 점도 더 이상의 추측을 어렵게 한다.²⁵ 둘째, 동진대 지궁에서는 석상 밑에서 석함-철호-은감-금루앵으로 구성된 4중

21 『梁書』는 “十六年 又使沙門僧尚伽爲三層 卽高祖所開者也”라 전하며, 『南史』에는 “十六年 又使沙門僧尚伽爲三層 卽是武帝所開者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 무제가 연 탑이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간문제가 조성한 탑이 아니라 혜달의 단층탑을 3층으로 개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2 지궁의 깊이에 관해 서술한 대목은 두 기록이 조금 달라서 주의를 요한다. 『양서』에는 “可深九尺許 方至石礫.” 『남사』에는 “可深九尺許 至石礫”이라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方’자는 9척까지 파내려가고서야 지궁의 바닥에 이르렀다는 강조의 뜻에서 ‘바야흐로’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23 양 무제의 장간사 사리 공양에 대해서는 주경미, 『北宋代 塔形舍利莊嚴具의 研究』, 『中國史研究』 60(2009), pp. 75-76; 同著,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과 고대 동남아시아』, 『人文論叢』 67(2012), pp. 21-26; 蘇鉉淑, 『政治와 瑞祥, 그리고 復古: 南朝 阿育王像의 形式과 性格』, 『美術史學研究』 271·272(2012), pp. 275-277 참조.

24 祁海寧과 周保華는 용굴이 곧 지궁을 의미하며, 지궁은 원형의 洞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祁海寧·周保華, 앞의 논문, p. 71. 반면 高繼賢은 용굴이 사리석함이 매납된 탑기 최하부가 아니라, 상부의 탑기 향토 안에 금은진보 등의 공양품을 방치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용굴은 지궁의 異名이라기 보다는 신성한 공간을 지칭하는 술어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高繼賢, 앞의 논문, p. 76.

25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년명 사리탑 지궁은 북위 太和 5년(481) 건립된 하북성 定縣의 5층탑 지궁이나, 탑기와 지궁의 형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참고로 북위 熙平 元年(516)의 기년이 있는 낙양 永寧寺塔 지궁은 방형의 수혈토광이며, 광내에서 벽돌이나 석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河北定縣

사리기가 발견됐는데, 이는 동오대 지궁에서 헤달이 발굴했다는 석함형의 석비-철함-은함-금함과 비교할 때 그 재질과 구성이 유사하다. 대사원지에서 발견된 주춧돌 중에는 중앙에 방형의 감이 파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석상이 동오대 지궁에서 발견됐다는 철함이 들어있던 석비를 가리켰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석비는 覆石으로 재사용됐고, 새롭게 조성된 석함이 사리장엄구에 추가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경우에도 동오대와 동진대의 사리장엄구는 재료와 구성의 양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상의 논의는 동오와 동진 시기에 건립된 두 지궁의 구조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양 무제가 새로 건립했다는 쌍탑의 지궁 역시 과거의 지궁 구조를 계승한 것이었을까? 양대 장간사의 아육왕탑 2座의 지궁은 수당대에 이미 개보되어 전하지 않는다. 1기는 수開皇 12년(592)에 晉王 楊廣에 의해 발굴됐으며, 그 때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장안으로 이안돼 日嚴寺 탑 아래에 다시 매납됐다.²⁶ 아쉽게도 양광이 발굴했다는 지궁의 구조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한편 1960년에 발굴된 甘露寺 鐵塔 지궁에서 출토된 <李德裕重瘞長干寺阿育王塔舍利記>는 다른 한 탑의 지궁이 당말의 고관 이덕유에 의해 발굴됐음을 알려준다.²⁷ 명문에 의하면 사찰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아육왕탑의 지궁을 열어 사리 21粒을 얻었고, 建初寺에 이안하여 안치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구절이 바로 21粒의 사리 중 11粒을 長慶 4년(824)에 北固山 위에 “長干寺舊制”에 의거하여 세웠다는 석탑에 안치했다는 대목이다.²⁸ 이덕유의 석탑은 현재 지상부는 물론 지하부도 사라진지 오래이나, 당시 제작된 사리장엄구는 1069년에 우연히 발굴된 후 1078년에 건립된 감로사 철탑에 다시 봉안됐다. 감로사 철탑 지궁에서 발견된 元豐元年銘(1078) <潤州甘露寺重瘞舍利塔記>는 북송대에 발굴된 이덕유 창건의 당대 석탑 지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²⁹ 이에 의하면 民夫가 감로사에서 땅을 파서 금을 얻었는데, 파면 팔수록

出土北魏石函, 『考古』 1966年 5期, pp. 252-25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北魏洛陽永寧寺 1979-1994年考古發掘報告』 (北京: 中國大百科典書出版社, 1996), p. 20.

²⁶ 武德 7년(624) 발굴된 日嚴塔 아래에서는 사리 3매, 손톱 2매, 갖가지 보물 등이 발견됐다. 이 때 발굴된 사리는 崇義寺 탑에 매납됐다. 『法苑珠林』, T2122, 53:586a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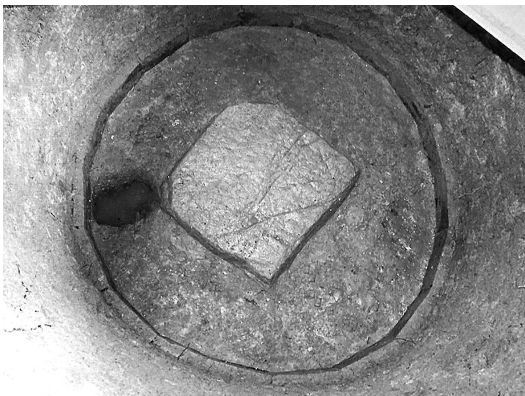
²⁷ 江蘇省文物工作隊鎮江分隊·鎮江市博物館, 『江蘇鎮江甘露寺鐵塔塔基發掘記』, 『考古』 1961年 6期, pp. 302-315 및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일지사, 2003), pp. 306-312 참조.

²⁸ 명문은 다음과 같다. “上元縣長干寺阿育王塔舍利二十一粒 緣寺久荒廢 以長慶甲辰歲十一月甲子移置建初寺 分十一粒置北固山依長干舊製造石塔永護城鎮與此山俱”; 江蘇省文物工作隊鎮江分隊·鎮江市博物館, 위의 논문, p. 304, 圖5.

²⁹ 원문은 江蘇省文物工作隊鎮江分隊·鎮江市博物館, 위의 논문, p. 315 참조.

금이 더 나오자 계속 아래로 파내려갔으나 시종 벽돌이나 석재를 사용한 흔적을 보지 못했다. 민부는 석함을 하나 발견하고 나서야 이곳이 부도의 옛 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벽돌이나 석재의 흔적이 없다는 점, 석함이 땅 속에 직접 매납됐다는 점은 북송대에 발굴된 감로사의 唐塔 지궁 역시 수혈토광식의 고식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를 통해 이덕유가 의거했을 양대 아육왕탑의 지궁, 즉 “장간사의 옛 제도” 역시 동오와 동진대의 장간사 아육왕탑 지궁 구조를 계승한 수혈토광식이었다고 추론이 가능하다.³⁰

기록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역대 장간사 아육왕탑 지궁의 주요 요소는 북송 장간사 진신탑 지궁에서 보이는 일련의 특징과 부합한다. 진신탑의 지궁은 원형의 수혈토광이며, 지표 아래 4.28m 지점에 위치한 지궁 중심부에서는 한 변이 각 0.9m, 두께가 0.2m인 방형에 가까운 覆石이 발견됐다(도 6). 북석 아래에는 사각 기둥 모양의 높이 1.83m의 석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3), 그 안에는 칠보아육왕탑을 봉안한 철함이 매납되어 있었다(도 7).³¹ 한편 祁海寧과 周保華는 「천회사신건법당기」와 「석함기」를 근거로 장간사의 남북조시대 아육왕탑 2기 중 적어도 1기의 지궁이 북송 진종대까지 존속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북송 진신탑의 탑기 내부, 지궁의 중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灰坑(편호 H37)이 바로 남북조시대 아육왕탑 2기 중 하나의 지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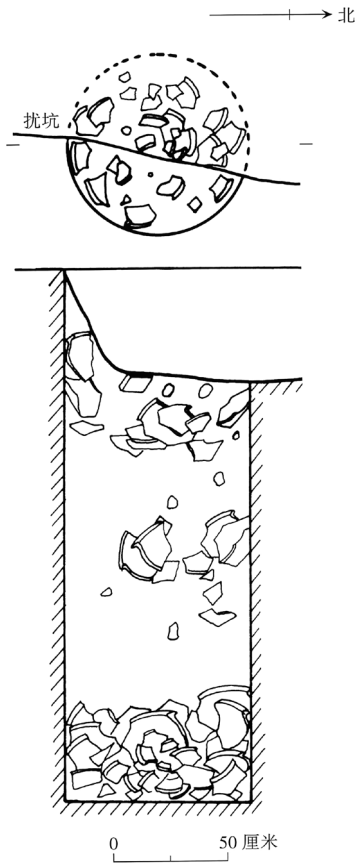


(左)도 6 長干寺 眞身塔 地宮 내 覆石(『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9, 圖8)

(右)도 7 鐵函과 石函 底座, 北宋 1011년, 鐵函: 高 132cm, 江蘇省 南京市 長干寺 眞身塔 地宮 출토, 南京市博物館(『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15, 圖18)

³⁰ 祁海寧·周保華, 앞의 논문, p. 72의 논의 참조.

³¹ 이 외에도 석함 아래에서 평면이 원형에 가까운 직경 0.64m의 소형갱이 발견됐다. 南京市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p. 6.



도 8 H37 평면도 및 부면도(『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10, 圖10)

이였을 것이라고 봤다(도 2). H37은 북송대 진신탑 지궁과 마찬가지로 원형의 수혈토광이며, 직경 0.8m, 깊이 2.32m의 크기이다(도 8). 앞서 언급했듯이 혜달이 발굴한 동오대 아육왕탑 지궁과 양 무제가 발굴한 동진대 아육왕탑 지궁은 깊이가 대략 1丈 좌우이다. 동진과 남조 시기의 1척은 약 24.2cm로 계산되기 때문에 2.42m에 해당하며, 이는 H37의 깊이인 2.32m와 비교적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이 회갱이 남조 장간사 아육왕탑의 지궁이며 북송 진신탑의 지궁은 바로 이것을 모방하고 계승했다는 주장이다.³²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회갱(H37)의 성격이다. 발굴 당시 이 회갱에서는 남조시대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송대의 후원자들이 과연 남북조시대의 원형 지궁을 직접적인 모델로 삼아 진신탑의 원형 지궁을 건조한 것인지, 아니면 사료에 기재된 옛 지궁의 형제를 참조하여 고식의 지궁을 건축한 것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둘 중 어느 쪽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진신탑의 후원자들이 이 회갱(H37)을 발견하고 양 무제가 중건한 쌍탑 중 1기의 지궁이라고 생각했다면, <석함기>나 여타의 명문에 왜 그와 같은 중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발굴과 재매납이라는 장간사 아육왕탑 공양의 역사적 패턴이나, <석함기>나 다른 명문에서 확인되는 장간사 아육왕탑의 오랜 역사에 대한 지역 불교계의 자부심을 고려하면 의문이 더 깊어진다.

³² 祁海寧과 周保華는 발굴 당시 H37에서 남조시대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당대에 2座的 장간사 아육왕탑 지궁이 모두 개봉되어 사리와 공양품이 유산됐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진신탑 지궁이 '원시적'인 형식으로 건립된 것은 장간사의 역대 아육왕탑의 역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지궁의 실물, 즉 H37을 모방·계승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라고 해석했다. 祁海寧·周保華, 앞의 논문, p. 71.

지금까지 장간사 아육왕탑 지공의 발굴과 재건에 대한 역대의 기록을 북송대 진신탐 지공의 발굴성과와 대조하여 살펴봤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진신탐의 후원자들이 당시 유행하던 지공의 구조를 채용하지 않고, 이미 그 명맥이 끊긴지 오래인 가장 초기의 지공 형태를 선택한 것은 장간사 아육왕탑의 오랜 역사를 존중하려는 의도의 발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진신탐 지공 구조에 보이는 고식은 의식적인 과거로의 회귀, 즉 擬古에 기초한 것이다. 필자는 문헌기록을 통해 형성된 신앙대중의 공통된 기억이 장간사 지공에 고식의 구조를 채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문헌자료가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담은 것이 아니라 편찬자가 중시했던 바를 선별적으로 기록한 산물이라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록에 의거한 역사적 사건의 모방 내지 재현은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當代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석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일례로 앞서 살펴본 문헌기록에는 장간사의 역대 아육왕탑 지공의 평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여기에서 부각된 것은 동진대 아육왕탑 지공, 혹은 그 구조의 일부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굴이란 특수 용어이다. 용굴은 북송대 진신탐의 후원자들에게 있어 다른 아육왕탑과는 차별되는 장간사 아육왕탑만의 고유한 특징이자 긴 역사의 증거로 이해됐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북송대 진신탐의 후원자들이 ‘굴’의 일차적인 의미이자, 근원적인 상징성에 착목하여 원형의 지공을 건설했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III. 七寶의 의미

2008년 7월 진신탐 지공이 발굴될 때 철함 안에서는 사리장엄구와 공양품이 봉안된 탑형사리구가 여러 겹의 비단에 싸인 채 발견됐다. 이 탑형사리장엄구가 바로 <석함기>에 “七寶造成阿育王塔”이라 기재된 금속제 소탑이다. 칠보아육왕탑은 방형 평면의 단층탑으로 높이가 117cm에 달하며, 대좌 밑면의 길이는 45cm이다(도 4). 전체 탑은 전단목으로 제작된 뼈대 위에 얇은 은판을 덧씌워 만든 후 도금해서 완성됐다. 탑 안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봉안한 사리장엄구가 여러 세트 발견됐다. 우선 佛頂眞骨舍利를 봉안한 가장 중심적인 사리장엄구는 석함, 철함, 칠보아육왕탑, 鑲金銀郭, 金棺의 5중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9,



도9 七寶阿育王塔 내 발견 銀櫛, 北宋 1011년, 高 20cm, 南京市博物館『文物』2015年 5期, p.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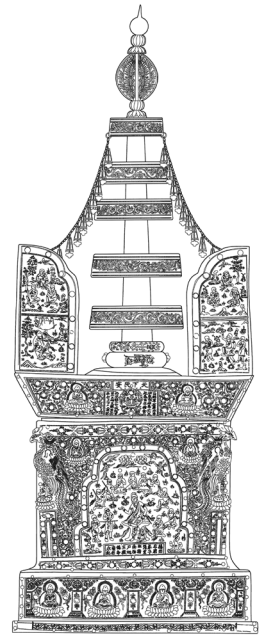


도 10 七寶阿育王塔 내 발견 金棺, 北宋 1011년, 高 7.8cm, 南京市博物館『文物』2015年 5期, p. 97)



도 11 금관 내 발견 水晶瓶(『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24, 圖34)

10). 또한 이 금관 안에는 諸聖舍利를 봉안한 水晶瓶 3개와 역시 제성사리를 담은 鑲金小銀函이 함께 봉안되어 있었다(도 11). 칠보아육왕탑 안에는 이 외에도 漆函, 大銀函, 小銀函, 수정병의 4중 사리장엄구에 봉안한 感應舍利와 비단 주머니(羅囊)에 담아 소은함에 봉안한 제성사리가 납입되어 있었다. 한편 철함 안에는 제성사리를 봉안한 유리병 1개와 각각 제성사리를 담은 비단 주머니 세 개가 별도로 납입되어 있었다.³³ 칠보아육왕탑의 표면은 452개의 구멍을 뚫어 그 안에 수정, 마노, 유리, 청금석 등의 철보를 감옥하여 장식했다. 탑의 각 부분에는 타출기법으로 여러 불교 조상과 장식문양을 표현했고, 칸을 마련하여 명문을 새겼다. 탑은 구조적으로 크게 基壇部, 塔身部, 相輪部の 세 부분으로 나뉜다(도 12).³⁴ 탑신부 사면에는 龕을 마련하여 그 안에 본생담을 묘사했고(도 13), 상륜부 네 모퉁이에는 山花蕉叶, 方立, 馬耳形 隅飾, 立飾部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는 돌기형 장식을 높게 세워, 외면에는 불전고사, 내면에는 불좌상과 명문 등을 새기고, 그 내부에 공양품을 안치했다(도 14). 상륜부 중심에 솟



도 12 七寶阿育王塔 시의도(『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16, 圖19)

³³ 南京市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p. 12, 圖13 참조. 탑신 내부에서는 이 외에도 다량의 공양품이 출토됐다.

³⁴ 중국학계의 연구에서는 塔基, 塔身, 塔頂의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한다.

은 탑찰의 가장 아래쪽 좌우로는 명문란을 마련하여 그 안에 장문의 발원문 1편을 나누어 새겼다. 명문은 개별 공양자의 이름, 공양품의 종류와 수량, 은탑 중 본인이 제작을 후원한 부분 순으로 정형화된 내용을 반복하다가, 대중상부 4년(1011) 4월 8일이란 발원의 날짜, 장인의 이름, 전체 불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들의 이름으로 끝을 맺는다(도 15).³⁵

혜달이 장간사 아육왕탑을 발굴했을 때 탑은 이미 무너져 기단만 남아있었다.³⁶ 그가 석비 안에서 발굴했던 사리기는 철함, 금함, 은함으로 구성됐으며, 사리는 이중 금함 안에 봉안돼 있었다고 전한다.³⁷ 다시 말해, 동진 장간사 전승에서 보이는 ‘아육왕탑’이란 명칭은 지상에 건립된 탑을 지칭하며, 사리기는 탑의 형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복층 장간사 진신탑에서 출토된 불정진골사리 장엄구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함-철함-칠보아육왕탑-은곽-금관의 순서로 구성됐다. 무엇보다도 석함과 철함은 혜달의 고사와 부합하지만, 지굴에 매납된 사리장엄구 중 발원자들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칠보아육왕탑과 불정진골을 직접 봉안하고 있던 은곽과 금관은 문헌에서 전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진신탑 지굴에 채택된 고식의 구조에서 보이는



도 13 七寶阿育王塔 塔身部の尸毗王殺鴿命變相(『聖塔佛光』, p. 16)
 도 14 七寶阿育王塔 立飾部の세부(『聖塔佛光』, p. 9)
 도 15 七寶阿育王塔 塔身 頂部の 발원문 후반부(『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17, 圖21)

³⁵ 발원문 전문은 南京市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pp. 19-20 및 p. 17의 圖20, 21 참조.

³⁶ 『高僧傳』, T2059, 50:409b-410a.

³⁷ 『集神州三寶感通錄』, T2106, 52:405b-406a. “內有鐵銀金三函相重 於金函內有三舍利” 한편 『廣弘明集』에는 철함이나 은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 『廣弘明集』, T2103, 52:201c27-28. “掘之一丈得三石匣 中有金函盛三舍利并髮爪”

과거의 모방, 계승의 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오히려 初唐 이후 중국 다층 사리기의 내용기로 애용된 관곽형을 사리장엄방식에 수용한 결과로 봐야한다. 바꿔 말하자면 진신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형식과 구성은 지궁의 구조에서처럼 단일한 동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칠보아육왕탑의 구조와 도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홍숙 발원의 금속제 소탑과의 관련성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乙卯歲銘(955) 동제 소탑(도 16)과 乙丑歲銘(965) 철제 소탑(도 17),³⁸ 그리고 절강성 항주 雷峰塔에서 출토된 무기년명 은제 소탑 2기 등이 있다(도 18).³⁹ 상술한 바와 같이, 전홍숙이 발원한 금속제 소탑, 즉 탑형 사리장엄구는 당시 오월 통치 하에 있던 무현 아육왕탑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다.⁴⁰ 강남지역에 분포하는 불탑의



(左)도 16 小塔, 吳越 955년, 銅製, 高 21cm, 浙江省 桐鄉 崇德 崇福寺塔 塔頂 출토, 浙江省博物館『地踊天寶』, p. 180



(右)도 17 小塔, 吳越 965년, 鐵製, 高 25.5cm, 浙江省 紹興市 出土, 紹興市博物館『天覆地載』, p.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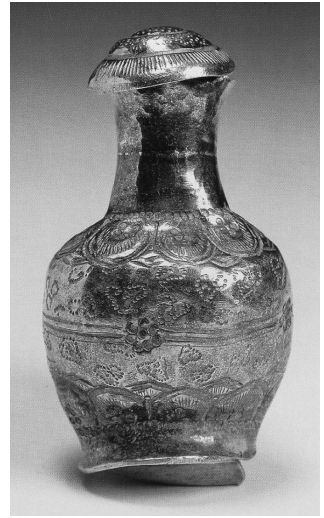
도 18 小塔, 吳越 970년대, 銀製, 高 36cm, 浙江省 杭州 雷峰塔 地宮 출토, 浙江省博物館『雷峰遺珍』, p. 130

³⁸ 동제 소탑은 중국 내에서는 20여 기가 출토됐고, 그 외 일본에 전하는 사례가 10여 기 있다. 철제 소탑은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13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³⁹ 탑의 건조 연대를 감안하면 97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뇌봉탑 지궁과 출토 유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杭州雷峰塔五代地宮發掘簡報』, 『文物』 2002年 5期, pp. 4-32;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雷峰塔遺址』 (北京: 文物出版社, 2005); 周旻美, 『중국 浙江省 杭州 雷峰塔의 佛舍利莊嚴』, 『불교미술사학』 4(2006), pp. 342-365.

⁴⁰ 현재 영파 아육왕사에는 아육왕탑으로 불리는 소재 미상의 소탑 1기가 소장되어 있다. 이 탑은 제작 연대가 불확

지궁과 탑신에서는 전홍숙이 발원한 동제와 철제 소탑과 유사한 금속제 소탑이 20여 기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⁴¹ 선행연구에서 이들은 오월국의 옛 영토에서 발견됐으며, 오월기 혹은 오월이 멸망한 이후 주로 민간 발원에 의해 제작됐기 때문에 전홍숙 발원의 금속제 소탑의 영향 아래 조성된 것으로 일괄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월의 옛 영토인 금릉에서, 오월 멸망 후 북송 치하에서 조성된 칠보아육왕탑은 이들을 대표하는 가장 크고 정교한 세부 장식을 지닌 수작으로 거론된다. 칠보아육왕탑과 전홍숙 발원의 금속제 소탑에서 보이는 형식적, 도상적 유사성은 명확하다. 또한 진신탑 사리장엄구에서 보이는 아육왕탑형 외용기와 관곽형 내용기를 결합한 사리장엄 방식 역시 뇌봉탑 지궁에서 출토된 은탑에서 이미 등장했다고 지적된 바 있다(도 18).⁴²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대양송 시기 강남지역에서 제작된 소위 아육왕탑형 금속제 소탑들은 외견상으로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반면, 그 내부의 사리장엄 방식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홍숙이 발원한 금속제 소탑 중에서도 제작 연대에 따라 내부 사리장엄 방식 및 봉안된 사리의 종류에 차이가 나타난다. 을묘세명 동제 소탑 안에는 身舍利가 아니라 法舍利인 『寶篋印陀羅尼經』을 넣은 주머니를 탑신 頂部 내면에 있는 갈고리에 걸어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⁴³ 을축세명 철제 소탑 중에는 내부에 筒에 넣은 『보협인다라니경』을 납입하고 저면을 봉안한 사례가 출토된 바 있다.⁴⁴ 심지어 뇌봉탑의 天宮에는 앞서 언급한 지궁 출토



도 19 金瓶, 吳越 970년대, 高 4.4cm, 浙江省 杭州 雷峰塔 天宮 出土, 浙江省博物館『雷峰遺珍』, p. 102

실하지만, 전홍숙이 발원한 동제와 철제 소탑과 형상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송대 이후 제작됐다는 추정은 주경미, 「남송대 정치 변동과 불사리장엄」, 『미술사와 시각문화』 9(2010), pp. 54-85.

41 黎毓馨, 「阿育王塔的發現與初步整理」, 浙江省博物館, 『天覆地載: 雷峰塔天宮阿育王塔特展』(杭州: 浙江省博物館, 2009), pp. 8-31; 崔應天, 「中國阿育王塔舍利器的特性和受用に 관한 고찰: 東國大博物館所藏石造阿育王塔을 中心으로」, 『東岳美術史學』 12(2011), pp. 39-40 참조.

42 周旻美, 앞의 논문(2009), p. 97.

43 일본의 승려 道喜가 961년에 동제 소탑을 배관하고 4년 뒤에 남긴 『寶篋印經記』(965년)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탑을 자세히 살펴보려 들어 올렸을 때 顯德三年銘(956) 『寶篋印經』이 담긴 주머니가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한다. 小野英二, 「『寶篋印經記』にみる日本の阿育王塔信仰受容の一断面」, 『奈良美術研究』 7(2008), pp. 182-194 참조.

44 張秀民, 「五代吳越國的印刷」, 『文物』 1978年 12期, p. 75; 浙江省博物館, 앞의 책, pp. 196-197.

의 은탑과는 대조적으로 관곽형 내용기가 아닌 보다 전통적인 형식의 金瓶을 매납한 은탑이 봉안됐다(도 19). 여타의 민간발원 금속제 소탑들은 정확한 출토상황이나 사리장엄방식을 알려주는 자료가 드물어서 그 양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내용기로 금병을 봉안한 경우가 알려져 있다.⁴⁵ 이와 같은 사리장엄방식의 다각화는 이 시기 유행했던 것이 어디까지나 무현 아육왕탑에 의거한 소탑의 형태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다시 말해, 소탑 외부에서 간취되는 형식적·도상적 동질성을 제외하면, 내부에 사리를 봉안하는 방식이나 내용기의 구성, 때로는 봉안되는 사리의 종류까지도 발원자의 선택에 달려있었던 것이다.⁴⁶

이를 감안하면 ‘칠보’라는 특수한 재질을 선택한 데에는 발원자의 특정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칠보는 전홍숙이 발원한 일련의 금속제 소탑과 오대 이후 강남지방에서 제작된 여타의 민간방조 아육왕탑형 사리기에서 찾기 어려운 장엄상의 큰 특징이다. 즉, 오대양송기 아육왕탑형 사리기라는 큰 범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시각적 요소이다. 한역 경전에서 칠보는 통상 귀하게 장엄된 모습을 나타내는 형용어로 사용되나, 구체적인 형상은 상세하지 않으며, 그 구성도 경전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리장엄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불사리를 위해 七寶塔을 세워 공양하라는 간략한 서술이 여러 경전에 대동소이하게 나타날 뿐이다. 불전의 칠보탑은 귀하게 장엄했기에 사리를 모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이상적인 탑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반면 실제 사리장엄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칠보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칠보아육왕탑의 경우 칠보의 의미를 불전이나 사리장엄의 일반적인 맥락 보다는 장간사 아육왕탑 공양의 역사라는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지역적 배경 속에서 찾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 근거로 <석함기>에는 “七寶造成阿育王塔”이라고 하여 칠보가 개별 사리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가 아니라, 다중 사리장엄구 중 아육왕탑을 장엄하는 데 특별히 쓰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탑신 표면에 삽입된 보석 중 瑪瑙(에메랄드)는 사리용기 자체의 재료로는 볼 수 없으며, 불전에 거론된 칠보에 대체로 포함되는 보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장간사 아육왕탑의 역사 중 칠보탑이 등장하는 것은 양 무제 때의 일이다.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 무제의 금릉 장간탑과 회계 무현탑의 공양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양서』에는 양 무제가 521년에 무현 아육왕탑을 열어서 사리를 발견했으며, 사리를 궁전으로 모셔

⁴⁵ 961년 제작된 강소성 蘇州 虎丘 雲巖寺塔 출토의 철제 소탑 안에 金瓶이 봉안되어 있었다. 蘇州博物館編, 『蘇州博物館藏虎丘雲巖寺塔, 瑞光寺塔文物』(北京: 文物出版社, 2006), p. 36.

⁴⁶ 물론 탑의 형태와 도상의 세부 역시 발원자와 장인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소소한 차이를 보여주나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시각적 유사성에 더 중점을 두었다.

와 공양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⁷ 이어서 普通 3년(522)에는 목탑과 건축물을 새로 짓고 아육왕사라 명명했다고 한다. 진신사리와 아육왕탑을 이 목탑 안에 봉안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양 무제 연간에 발견된 무현 아육왕탑은 지상에 세워진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사리 봉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小塔, 즉 탑 형태의 사리장엄구였을 것이다.⁴⁸ 이후 양 무제는 537년 8월에 장간사의 옛 탑을 발굴하여 진신사리를 발견했고, 이듬해 쌍탑을 건립할 때 金罍, 玉罍, 칠보탑, 석함으로 구성된 사리장엄구를 마련하여 부처의 사리와 爪鬚을 각각 모셨다. 양 무제가 무현 탑에서 꺼내왔다는 아육왕탑의 형상이나, 장간사 쌍탑의 지공에 매납했다는 칠보탑의 형상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탑형 사리장엄구는 양대 이전 장간사 아육왕탑 지공에 봉안됐던 사리장엄구의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낯선 기형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양 무제가 무현 아육왕탑을 발견한 이후 탑형 사리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장간사 아육왕탑을 다시 공양할 때 그 때까지의 장간사 아육왕탑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칠보탑이란 새로운 형식을 다중사리기의 외용기로 도입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양 무제가 발원했다는 칠보탑의 형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칠보로 장식한 화려한 탑 형태의 사리장엄구였을 가능성이 크다.⁴⁹ 즉 칠보아육왕탑의 형태는 오대 이후 강남지방에서 다시금 중시됐던 무현 아육왕탑에 기원을 두지만, 칠보라는 장엄상의 가장 두드러진 물질적 특징은 양 무제에 의해 시작된 금릉 장간사 아육왕탑 공양의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의도에서 의식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송대 칠보아육왕탑의 후원자들은 실제 과거의 유물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헌을 읽고 칠보라는 요소를 자신들의 아육왕탑 형식에 추가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탑과 지공의 건립과 사리장엄구의 매납을 총감독하고, 사리장엄구의 조성에도 시주자로 참여했던 연화대사 가정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이다. 특히 가정이 칠보아육왕탑의 표면을 장엄한 水晴珠寶를 시주했다는 점은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준다.⁵⁰ 가정의 사적은 僧傳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揚州와 남

47 『梁書』卷54 列傳 第48 第夷 扶南國. “先是二年 改造會稽鄞縣塔 開舊塔出舍利 遣光宅寺釋敬脫等四僧及舍人孫照暫迎還臺 高祖禮拜竟 卽送還縣入新塔下 此縣塔亦是劉薩何所得也”; 『集神州三寶感通錄』, T2106, 52:405a. 『양서』의 기사에는 연호 없이 “이에 앞서 2년에(先時二年)”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연도를 普通 2년(521), 大同 2년(536), 大同 9년(543)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여기에서는 『집신주삼보감통록』의 기사와 양 무제의 장간사 아육왕탑 공양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정한 주경미 박사의 견해를 따랐다. 周旻美, 앞의 논문(2009), pp. 74-75.

48 周旻美, 위의 논문, pp. 74-75.

49 周旻美, 「탑형 사리장엄구: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 『미술사와 시각문화』 5(2006), p. 233.

50 탑신 표면에 감입된 珠寶의 시주와 관련된 구절은 탑신 頂部の 명문란에 등장한다. “應承福捨水晴五十箇 演化大士將到大聖七寶念珠并水晴珠寶 并裝在塔上 鐘旺捨水晴…” 가정 외에도 荀懷義가 碑礫念珠를 시주했음이 명문을 통해 확인되며, 진신탑 지공에서는 실제로 두 쌍의 염주가 발견됐다. 南京市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p. 40, 44.

경의 지방지에서 산견되며,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造塔 활동에 힘썼던 승려이다.⁵¹ 지궁에서 출토된 羅帕(편호 DG1: 207) 위에 쓰인 발원문에 의하면 가정은 유년 시절 남경 升元寺 玄月화상 문하에서 출가하여 律師가 됐고, 이후 紫依를 하사받았으며, 연화대사라 封號됐음을 알 수 있다(도 20).

당시 유행했던 아육왕탑의 형식을 따르되, 칠보라는 특수한 재료를 더한 칠보아육왕탑 후원자들의 선택은 唐代에 이르면 이미 20기 이상으로 늘어났던 중국의 다른 아육왕탑과 구별되는 장간사 아육왕탑의 권위와 명성을 되살리려는 의도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까운 과거인 오월대나 동시기에 제작된 다른 ‘아육왕탑’과 칠보아육왕탑을 구별하는 요소로서, 양 무제가 세웠던 장간사 아육왕탑 공양의 지역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도가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도 20 七寶阿育王塔 내 발견 羅帕(DG1: 207),北宋 1011년, 長 56, 幅 48cm, 南京市博物館(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p. 39, 圖80)

IV. 復古, 古式의 재현을 통한 과거의 회복

이 논문은 ‘민간방조 아육왕탑’이란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는 일군의 유물에 보이는 작은 시각적 차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칠보아육왕탑은 단순히 북송대에 오월국의 옛 영토에서 만들어진 아육왕탑의 한 사례가 아니다. 이 글은 칠보아육왕탑을 오대 이후 강남지역에서 유행한 탑형사리장엄구라는 보다 보편적인 범주가 아니라, 동진대부터 시작된 장간사 아육왕탑 공양의 전통이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고찰했다. 이를 통해 북송대 칠보아육왕탑의 후원자들이 양 무제가 후원했다는 ‘칠보탑’을 그 원류로 삼았음을 밝히고, 북송대 아육왕탑 신앙에서 이 사리장엄구가 갖는 특수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북송대 진신탑의 후원자들

이로 미루어 보아 가정이 염주는 사리의 공양품으로서 시주하고, 수정주보는 탑신 표면을 장엄하기 위해 희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⁵¹ 가정은 적어도 4기의 불탑 건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의 사적과 활동에 대해서는 龔巨平·禰海寧, 앞의 논문, p. 71 및 禰海寧, 「不可湮沒的一代高僧—北宋演化大士可政考述」, 『正觀』61(2012), pp. 123-173 참조.

은 동오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간사 아육왕탑의 오랜 역사, 그리고 발굴과 재매납이라는 장간사 아육왕탑 공양 특유의 역사적 패턴을 문헌과 전승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동시대 사리탑 지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식의 지공 구조, 탑형사리기에 사용된 칠보라는 특별한 재료, 그리고 아육왕탑이란 명칭은 이를 입증한다. 결국 진신탑 지공의 건설과 칠보아육왕탑의 조성은 여타의 아육왕탑과는 구별되는 장간사 아육왕탑 공양의 역사를 재현하려는 의도의 발로였던 것이다.

장간사 진신탑 지공과 칠보아육왕탑이 조영된 배경에는 중국미술사에서上古시대부터 끊이지 않고 나타났던 복고적인 경향이 있었다.⁵² 복고라는 단어는 통상 과거로의 회귀로 이해되지만, 과거의 회복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현재를 과거와 연결시키려는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복고는 필연적으로 재현하는 과거의 행위와 대상에 본래와는 다른 방향성과 목적을 부여하게 된다.⁵³ 이 점에서 복고는 과거의 재창조로 귀결된다. 우흥은 중국미술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복고적 패턴을 논하면서, 의고적인 미술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후원자와 예술가의 정치적, 사회적, 예술적 목적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꼽았다.⁵⁴ 장간사 진신탑과 지공의 후원자들은 과거 장간사 아육왕탑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후원하고 공양했던 왕조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이 지역의 僧尼와 신앙대중이었다. 이들이 실천했던 복고적 경향을 양 무제의 경우에서처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통치행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가정을 비롯한 진신탑 후원세력의 복고 행위는 북송 초 불교계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주지하다시피 북송 초의 황제들은 불법을 후원하긴 했지만 사원과 승려들의 숫자를 통제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⁵⁵ <석함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진신탑의 건립을 포함한 북송 초 장간사의 부흥이 황제의 지시가 아니라 가정의 적극적인 건의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⁵⁶ 지공에서 출토된 명문에서 확인되듯이 황제의 지시가 인근 신앙대중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⁵⁷ 황권이 불교계를 강하

52 남조 아육왕상의 형식과 양무제의 아육왕탑상 후원을 복고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로는 蘇鉉淑, 앞의 논문 참조.

53 Frederick W. Mote, "The Art and the 'Theorizing Mode' of the Civilization," in Christian Murck, ed., *Artists and Traditions: Uses of the Past in Chinese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Art Museum, 1976), p. 7.

54 Wu Hung, "Patterns of Returning to the Ancients in Chinese Art and Visual Culture," in Wu Hung, ed., *Reinventing the Past: Archaism and Antiquarianism in Chinese Art and Visual Culture* (Chicago: Center for the Art of East Asia, 2010), p. 31.

55 Huang Chi-chiang, "Imperial Rulership and Buddhism in the Early Northern Song," in Frederick P. Brandauer and Chun-Chieh Huang, ed., *Imperial Rulership and Cultural Change in Imperial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4), pp. 144-187 참조.

56 <석함기>, "言告中貴 以事聞天 尋奉綸言 賜崇寺塔"; 夏維中·楊新華·胡正寧, 「南京天禧寺的沿革」, 『江蘇社會科學』 2010年 3期, pp. 230-231.

57 "...幸遇皇帝建金陵長干寺阿育王所造釋迦佛真身舍利塔..."; 南京市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p. 44.

게 통제했던 북송 초의 상황을 고려하면 가정을 비롯한 진신탐의 후원자들이 진종에게 바랐던 것은 양 무제가 장간사에 보냈던 것과 같은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였을 것이다. 진종은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泰山封禪을 거행했던 열렬한 도교 후원자였다.⁵⁸ 그러나 진종의 도교 숭배가 불교의 배척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대중상부 연간은 天書의 降臨으로 비롯된 종교적 祥瑞에 환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⁵⁹ 비록 장간사가 재건된 몇 년 후의 일이지는 하나, 대중상부 6년(1013)에는 開封開寶寺 탑 위에 나타난 金光에서 相輪이 나타나 진종이 행차하자 곧 사리가 출현하여 이후 靈感塔이란 이름을 하사했다는 일화는 도교 뿐 아니라 불교적 상서까지 옹호했던 진종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⁶⁰

연화대사 가정이 불교적 상서, 즉 사리의 放光 및 感得을 계기로 진종의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은 장간사의 재건이 북송 초 사회문화의 시대적 산물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塔主’ 혹은 ‘勾當造塔’으로서 황제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정이 기울인 노력은 <석함기> 및 <천희사신건법당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구절은 탑의 중건을 위한 擇地를 둘러싼 정황이다. <석함기>에는 “앞서 빛이 현현했던 곳에 이름난 장인을 선별하여 전탑을 지었다”라고 다소 간략하게 서술된 반면, <천희사신건법당기>에는 방광의 사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북송 초 장간사의 옛터에 설치되어 있던 병영을 폐쇄하자 사찰이 황폐해졌으나, 오랫동안 사리가 수차례 나타나 감응을 보였다. 대중상부 연간 승려 가정이 그 자취와 감응사리에 대해 형용하여 바치자, 진종이 조칙을 내려 사찰로 복원토록 했다. 가정은 사리가 나타난 그 자리에 탑을 세웠는데, 이 탑은 聖感舍利寶塔이라고 사호했다.⁶² 신실한 기원에 응해 사리가 스스로 모습을 나타낸다는 감응의 개념은 중국의 사리 영험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티프이다. 방광 역시 사리관련 기록에서 사리의 신이한 능력의 증거로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 점에서 가정과 감응사리의 설화는 중국 사리 영험담의 관습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한 구절이 흥미로운 이유는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던 聖蹟에서

58 진종의 도교 숭배 및 종교정책에 대해서는 朴志焄, 『北宋 眞宗의 封禪과 道教崇拜』, 『宋遼金元史研究』 4(2000), pp. 59-91; 吳相勳, 『北宋 佛教思想의 한 기조—유·불·도교의 접근—』, 『북현사림』 21.1(1998), p. 382.

59 1008년에 대중상부로 改元한 것 자체가 承天門에서 발견된 소위 천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60 『汴京遺蹟志』 卷10; 黃啟江, 『北宋汴京之寺院與佛教』, 『國立編譯館館刊』 80.2(1989), p. 105.

61 <석함기>, “先現光之地 選彼名匠 載建磚塔”

62 李之儀, 『姑溪居士前集』 卷 37, 『天禧寺新建法堂記』, “江寧府天禧寺及長干道場 舊葬釋迦真身舍利 後寺廢 至南唐時為營 廬舍雜比 汗穢蹂踐 無復伽藍緒餘 國初 營廢 鞠為榛莽 久之 舍利數表見感應 祥符中 僧可政狀其跡 並感應舍利投進 有詔復為寺 政即其表見之地建塔 賜號聖感舍利寶塔 至天禧中 又賜今額”

나타난 사리의 이적과 승려의 감응, 황제의 후원과 지지, 아육왕탑의 재건이라는 주요 모티프가 혜달의 장간사 아육왕탑 발견 고사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남북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서사구조의 사리 영험담이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천하에서 앞 다투어 상서를 말하는 대중상부 연간의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지궁과 칠보아육왕탑에 채택된 복고적 형식 및 사리 출현고사의 오래된 서사구조는 결국 과거 장간사가 누렸던 영광과 성지로서의 지위, 이를 가능하게 했던 황실의 후원을 현재에 다시 재현하려는 의도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본고에서는 칠보아육왕탑을 중심으로 장간사 진신탑 지궁 출토의 불사리장엄에 대해서 고찰했지만, 추후에는 칠보아육왕탑 내부에 봉안된 관곽형 사리장엄구나 다수의 공양품과 이들의 후원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무현 아육왕탑, 전홍숙 발원의 금속제 소탑, 칠보아육왕탑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칠보아육왕탑과 20여 기 이상 유존하는 여타의 민간 발원 아육왕탑 사이의 상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주제어(key words)** 주제어: 長干寺(Changgan Monastery), 眞身塔(Zhenshen Pagoda), 地窟(underground relic crypt), 七寶阿育王塔(Seven-jeweled King Aśoka stūpa), 復古(recovering the past)

■ 투고일 2017년 5월 31일 | 심사게시일 2017년 6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18일 ■

참고문헌

1. 사료

『高僧傳』, T2059

『廣弘明集』, T2103

『南史』

『唐大和上東征傳』, T2098

『法苑珠林』, T2122

『汴京遺蹟志』

『梁書』

『集神州三寶感通錄』, T2106

2. 한국어 문헌

국립청주박물관, 『백제 금동 대향로와 창왕명사리감』, 국립청주박물관, 1996.

박건주 외 옮김, 『集古今佛道論衡外』, 동국역경원, 1999.

朴志焄, 『北宋眞宗의 封禪과 道教崇拜』, 『宋遼金元史研究』4, 2000.

蘇鉉淑, 『政治와 瑞祥, 그리고 復古: 南朝 阿育王像의 形式과 性格』, 『美術史學研究』271·272, 2012.

吳相勳, 『北宋 佛教思想의 한 기초-유·불·도교의 접근-』, 『북현사림』21.1, 1998.

周昶美,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_____, 『탑형 사리장엄구: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 『미술사와 시각문화』5, 2006.

_____, 『중국 浙江省 杭州 雷峰塔의 佛舍利莊嚴』, 『불교미술사학』4, 2006.

_____, 『中國의 阿育王塔 전승 연구』, 『東洋古典研究』28, 2007.

_____, 『北宋代 塔形舍利莊嚴具의 研究』, 『中國史研究』60, 2009.

_____, 『남송대 정치 변동과 불사리장엄』, 『미술사와 시각문화』9, 2010.

_____,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과 고대 동남아시아』, 『人文論叢』67, 2012.

崔應天, 『中國阿育王塔舍利器의 特性和 受用에 관한 고찰: 東國大博物館所藏石造阿育王塔을 中心으로』, 『東岳美術史學』12, 2011.

3. 동양어문헌

江蘇省文物工作隊鎮江分隊·鎮江市博物館, 『江蘇鎮江甘露寺鐵塔塔基發掘記』, 『考古』1961年6期.

- 高繼習,「中國古代舍利地宮刑制研究」,山東大學校 博士學位論文,2017.
- 龔巨平·祁海寧,《金陵長干寺真身塔藏舍利石函記》考釋及相關問題,『東南文化』2012年2期.
- 祁海寧,「不可湮沒的一代高僧—北宋演化大士可政考述」,『正觀』61,2012.
- 祁海寧·龔巨平,「北宋長干寺聖感塔地宮形制成因初探」,『東南文化』2012年1期.
- 祁海寧·周保華,「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時代、性質及相關問題研究」,『文物』2015年5期.
- 祁海寧·周保華·龔巨平,「南京大報恩寺遺址北區考古發掘」,國家文物局 主編,『2010 中國重要考古發現』,北京:文物出版社,2011.
- 南京市考古研究所,「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文物』2015年5期.
- 南京市博物館,「聖塔佛光:南京大報恩寺址聖感塔地宮出土舍利器」,南京:南京市博物館,2009.
- 東京國立博物館 外,『中國王朝の至寶』,東京:每日新聞社,2012.
- 黎毓馨,「杭州雷峰塔地宮的清理」,『考古』2002年7期.
- _____,「阿育王塔的發現與初步整理」,浙江省博物館,『天覆地載:雷峰塔天宮阿育王塔特展』,杭州:浙江省博物館,2009, pp.8-31.
- 徐萃芳,「中國舍利塔基考述」,『中國歷史考古學論叢』,臺北:允晨文化出版公司,1995, pp.417-437.
- 釋如常 主編,『七寶瑞光:中國南方佛教藝術展』,高雄:佛光山文教基金會,2014.
- 小野英二,「『寶篋印經記』にみる日本の阿育王塔信仰受容の一断面」,『奈良美術研究』7,2008.
- 小野玄妙,「吳越王錢弘俶敬造金塗塔私考」,『佛教の美術及び歴史』,東京:佛書研究會,1916, pp.617-640.
-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雷峰遺珍』,北京:文物出版社,2002.
- _____,「杭州雷峰塔五代地宮發掘簡報」,『文物』2002年5期.
- _____,『雷峰塔遺址』,北京:文物出版社,2005.
- 張秀民,「五代吳越國的印刷」,『文物』1978年12期.
- 浙江省博物館,『天覆地載:雷峰塔天宮阿育王塔特展』,杭州:浙江省博物館,2009.
- _____,『地涌天寶:雷峰塔及唐宋佛教遺珍特展』,杭州:浙江省博物館,2010.
- 曾立平,「地久天長斯文永振—揭開長干寺真身塔地宮佛頂真骨舍利之謎的碑刻」,『東方收藏』2015年1期.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北魏洛陽永寧寺 1979-1994年考古發掘報告」,北京:中國大百科典書出版社,1996.
-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河北定縣出土北魏石函」,『考古』1966年5期.
- 夏維中·楊新華·胡正寧,「南京天禧寺的沿革」,『江蘇社會科學』2010年3期.
- 黃啟江,「北宋汴京之寺院與佛教」,『國立編譯館館刊』80.2, 1989.

4. 서양어 문헌

- Huang, Chi-chiang. "Imperial Rulership and Buddhism in the Early Northern Song." In Frederick P. Brandauer and Chun-Chieh Huang, ed., *Imperial Rulership and Cultural Change in Imperial China*, 144-187.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4.

Mote, Frederick W. "The Art and the 'Theorizing Mode' of the Civilization." In Christian Murck, ed., *Artists and Traditions: Uses of the Past in Chinese Culture*, 3-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Art Museum, 1976.

Wu Hung. "Rethinking Liu Sahe: The Creation of a Buddhist Saint and the Invention of a 'Miraculous Image,'" *Oriental Art* 27.10, Nov. 1996.

_____. "Patterns of Returning to the Ancients in Chinese Art and Visual Culture." In Wu Hung, ed., *Reinventing the Past: Archaism and Antiquarianism in Chinese Art and Visual Culture*, 9-48. Chicago: Center for the Art of East Asia, 2010.

국문초록

중국 강소성 남경시의 古長干里에 위치한 명대의 大報恩寺 유적은 남북조시대의 대찰인 長干寺가 위치했던 곳이다. 장간사는 석가모니 부처의 眞身舍利를 모신 阿育王塔을 봉안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특히 梁武帝 시기에는 황실 후원의 대규모 사리공양으로 그 이름을 널리 떨쳤던 강남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아육왕탑은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 즉 阿育王이 기원전 3세기경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웠다는 전설상의 八萬四千塔을 지칭한다. 그러나 중국의 아육왕탑은 실제로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 건립됐다고 간주된다. 남북조시대 이래 당대에 이르기까지 집록된 아육왕탑에 대한 고사와 영험담은 아육왕탑이 역사적인 사실이나 형태와는 무관하게 부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聖物로 널리 존승됐음을 알려준다.

장간사의 명성 역시 아육왕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장간사와 아육왕탑의 명성은 사찰이 부침을 겪으며 폐사된 이후에도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 널리 유통되며 신앙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장간사의 오랜 역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송대 장간사와 그 아육왕탑의 모습은 2007년 2월에서 2010년 말까지 발굴된 대보은사 유지에서 大中祥符 4년(1011)에 건립된 眞身塔의 지공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장간사 진신탑 지공과 그 출토유물은 문헌과 전승을 통해 형성된 아육왕탑에 대한 북송 불교계와 신앙대중의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간사 진신탑 지공은 여타의 동시대 사리탑 지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古式의 구조로 건설됐기 때문에 발굴이 완료된 직후부터 중국 고고학계의 크나큰 관심을 받았다.

이 논문은 진신탑 지공의 구조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장간사의 역대 아육왕탑 탐기 발굴과 재건에 대한 문헌기록 및 관련된 사리탑 지공의 발굴성과와 비교하여 재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송대에 고식의 지공이 건설된 이유와 의미를 장간사 아육왕탑의 역사에 대한 당시 불교계와 신앙대중의 인식에서 찾았다. 이어서 지공 출토의 多重 사리장엄구 중 七寶阿育王塔을 오대 이후 강남지역에서 유행한 탑형사리장엄구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동진대부터 시작된 장간사 아육왕탑의 발굴과 재매납의 전통이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고찰했다. 이를 통해 북송대 칠보아육왕탑의 후원자들이 양 무제가 조성했다는 ‘七寶塔’을 그 원류로 삼았음을 밝히고, 북송대 아육왕탑 신앙에서 이 사리장엄구가 갖는 특수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북송대 진신탑의 후원자들은 동오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간사 아육왕탑의 오랜 역사, 그리고 발굴과 재매납이라는 장간사 아육왕탑 공양 특유의 역사적 패턴을 문헌과 전승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동시대 사리탑 지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식의 지공 구조, 탑형사리기에 사용된 칠보라는 특별한 재료, 그리고 아육왕탑이란 명칭은 이를 입증한다. 결국 진신탑 지공의 건설과 칠보아육왕탑의 조성은 여타의 아육왕탑과는 구별되는 장간사 아육왕탑 공양의 역사를 재현하려는 의도의 발로, 즉 복고적 행위였다. 장간사 진신탑과 지공의 후원자들은 과거 장간사 아육왕탑을 정치적 목적에서 후원하고 공양했던 왕조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이 지역의 僧尼와 신앙대중이었다. 황권이 불교계를 강하게 통제했던 북송 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진신탑의 후원자들이 복고를 통해 회복하고자 희망했던 것은 양 무제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황제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였을 것이다.

Abstract

On the Seven-jeweled King Aśoka Stūpa from the Underground
Relic Crypt of Zhenshen Pagoda at Changgan Monastery in
Northern Song Jinling

Lee Seunghye*

The site of Grand Bao'en Monastery of the Ming dynasty, located in present-day Nanjing, Jiangsu province, corresponds to the former site of Changgan Monastery—one of the great monasteries built in southern China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he monastery is well known as home of a “King Aśoka stūpa,” which was believed to have enshrined the true-body relics of Śākyamuni Buddha. In particular, it was remembered for the grand-scale relic veneration sponsored by Emperor Wu of the Liang dynasty. Legend has it that the Indian King Aśoka of the Mauryan Dynasty, who reigned during the third century BCE, had built 84,000 stūpas overnight to enshrine cremated bodily relics of the Buddha all over the world. Although Chinese Buddhist writers claimed and recorded the presence of “King Aśoka stūpa” on their native land, modern scholarship agrees that those stūpas were in fact built after the transmission of Buddhism to China. Nevertheless, the miracle tales about the King Aśoka stūpas, collected from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to the Tang dynasty, attest that the King Aśoka stūpas were widely revered as the sacred places where the true-body relics of the Buddha were held regardless of historical facts or their forms.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he fame of Changgan Monastery was inseparable from its King Aśoka stūpa. More importantly, the fame of monastery and stūpa was printed in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local Buddhist even after the monastery was ruined through the circulation of textual accounts in which they are recorded at length. Changgan Monastery and its King Aśoka stūpa during the Northern Song, an important moment in the long history of the monastery, came to light when the underground relic crypt of Zhenshen Pagoda (d. 1011) was excavated underneath the Ming ruins of Grand Bao'en Monastery from February 2007 to the end of 2010. The underground relic crypt and its deposits demonstrate the local Buddhist's perception of the King Aśoka stūpa, formed through the textual sources, during the Northern Song. Since the underground relic crypt of Zhenshen Pagoda was built in the archaic structure not to be found in contemporary pagoda crypts, it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 from Chinese archaeologists short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excavation.

This article re-examines recent archaeological scholarship on the structure of the underground relic crypt of Zhenshen Pagoda in comparison with textual records of the foundations of successive King Aśoka stūpas at Changgan Monastery and other pagoda crypts excavated in China thus far. The pagoda crypt was, I argue, built in the archaic form because the local Buddhist of the time, both monastic and lay, deeply respected the history of Changgan Monastery. Shifting from a previous perspective that considers the Seven-jeweled King Aśoka stūpa as one of stūpa-shaped reliquaries prevalent in the Jiangnan region since the Five Dynasties, this study considers it within the local context of successive veneration of the King Aśoka stūpas at Changgan Monastery. My analysis has shown that the Northern Song patrons modeled their Seven-jeweled King Aśoka stūpa upon the seven-jeweled stūpa commissioned by Emperor Wu of the Liang dynasty, while revealing the distinctiveness of this particular reliquary among other contemporary stūpa-shaped reliquaries from the region. The local patrons of Zhenshen Pagoda must have well known the historical pattern of excavation and re-enshrinement distinctive to the King Aśoka stūpa of Changgan Monastery that traces back to the Eastern Wu through textual accounts and verbal transmissions. This is attested by the archaic structure of the relic crypt not to be found in contemporary pagoda crypts, seven jewels—the distinctive materials selected for the adornment of the reliquary—, and the very appellation of the reliquary, King Aśoka stūpa. After all, building

of the underground relic crypt of Zhenshen Pagoda and making of the Seven-jeweled King Aśoka stūpa were intended to re-enact the historical pattern of venerating King Aśoka stūpa of Changgan Monastery, which is distinguishable from other King Aśoka stūpas on Chinese soil. Yet, the patrons of Zhenshen Pagoda and its underground relic crypt were not monarchs who had sponsored and venerated the King Aśoka stūpas of Changgan Monastery for political reasons, but the local community of the monastic and lay. Considering that the emperors dominated the Buddhist institution during the early Northern Song, what the patrons of Zhenshen Pagoda wished to restore by returning to the past or *fugu* was the active patronage and support of their monastery by the imperial power just like Emperor Wu of the Liang dynasty had established a precedent.